

Waiting for Mom: “Is Mom Not Coming?”

–translated by Lisset Ramirez–

(written by Taejun Lee)

A toddler with a red nose, due to cold weather, was toddling out to the tram stop.

And the toddler stood up to the safe zone with a groan.

Soon a tram came.

The toddler tilted his head and asked the conductor.

“Is my mom not coming?”

“Do I know your mom?” said the conductor. And the conductor passed by with a clang–clang.

Another tram came.

“Is my mom not coming?”

“Do I know your mom?” said the conductor.

And this conductor also passed by with a clang–clang.

....

The next tram came again.

The toddler tilted his head and asked the conductor again.

“Is my mom not coming?”

“Oh, you’re waiting for your mom,” This conductor came down and said “You’ll get hurt. Stand still in one place only until your mom comes, okay?” And the conductor left.

The toddler did not budge despite the wind blowing, and did not ask questions again although another tram came,

but all he did was stand still, sporting a reddened nose.

엄마 마중

-이태준-

추워서 코가 새빨간 아가가 아장아장 전차 정류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깁’ 하고 안전지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내 전차가 왔습니다.

아가는 가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안 와요?”

“너희 엄마를 내가 아니?”

하고 차장은 ‘땡땡’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또 전차가 왔습니다.

“우리 엄마 안 와요?”

“너희 엄마를 내가 아니?”

하고 이 차장도 ‘땡땡’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전차가 또 왔습니다.

아가는 또 가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안 와요?”

.....

“오 엄마를 기다리는 아가구나” 하고 이번 차장은 내려와서,

“다칠라. 너희 엄마 오시도록 한군데만 가만히 섰거라, 응?”

하고 갔습니다.

아가는 바람이 불어도 꿈쩍 안 하고, 전차가 와도 다시는 묻지 않고,

코만 새빨개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